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만전

진안군, 3월 2일 첫 접종 앞두고 백신 200개 수송 완료

진안군은 오는 3월 2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25일 백신 200개 수송을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군은 3월 2일부터 1단계 접종 대상인 65세 이하 요양시설 6개소 종사자 124명에 대해 시설 방문 접종을 시작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1차 백신 수송이 완료된 것이다.

군은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접종 추진을 위해 나서고 있다. 앞서 24일에는 나혜수(진안 부군수)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장을 필두로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7개팀은 접종 시행계획 수립부터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백신 보관 및 관리와 이상반응 모니터링, 교통수송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 할 준비를 닦았다.

특히 의사회를 비롯해 민간 의료기관·경찰서·소방서·건강보험공단, 7733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간담회를 실시해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소통체계 구축·의료 인력 지원, 접종 추진현황 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센터는 ▲접근성 대규모 인원 수용가능성 ▲교통편의성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안군 전문문화전수관으로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3월까지 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접종대상은 18세 이상 인구의 약 2만 2,638명이며 이번 3월에 1단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우선 접종대상자로 분

류된 군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장소는 접종센터(전문문화전수관) 1개소와 위탁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등을 포함 9개소에서 실시한다.

1단계 요양시설 6개소 접종 대상자에 이어, 2단계는 3월 중에 고위험 의료기관(의료원) 및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에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65세 이상 군민과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등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18세 이상 군민 중 미 접종자는 7월 이후에 접종가능하나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숲에서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치유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산림치유의 공간인 '치유의 숲'이 장수군에 조성된다.(전체조감도 모습)

'그린 장수 치유의 숲' 조성 박차

군, 치유센터·테마숲·숲길 등 조성 7월 개장 계획

숲에서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치유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산림치유의 공간인 '치유의 숲'이 장수군에 조성된다.

25일 군은 천천면 비룡리 산84-2번지 일원에 50ha 이상 규모의 '그린 장수 치유의 숲'이 지난해 2월 20일에 착공해 올해 6월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 1동, 치유테마숲 9,500㎡, 치유숲길 5.2km 등 숲을 이용한 힐링공간이 조성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과 힐링의 장을 넘어 숲속에서 지친 현대인의 몸과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치유센터에서는 각종 정보제공과 교육·상담, 건강 체크 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유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열치료와 반식욕 및 족욕, 처방 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조성되는 치유테마숲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숲에 다양한 주제의 체험테마를 넣어 치유

와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사업이 외동자연휴양림과 연계하고 있어 휴양림 이용객들은 자연스럽게 치유의 숲을 체험할 수 있고, 치유의 숲 이용객들은 외동자연휴양림을 통해 숙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 장수 치유의 숲은 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외동자연휴양림 성수가와 맞물리는 7월에 개장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여가시간의 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건강·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명품 치유의 숲을 청정장수에 조성하게 됐다"며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수군의 청정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고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장수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치유의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진장축협, 종합업적평가 우수축협 선정

NH농협 생명보험부문 업적평가 1위 등 각종 사업 목표 달성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은 농협중앙회에서 2020년 말로 실시한 종합업적평가에서 우수축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0년도 NH농협 생명보험부문 업적평가 1위, 농협중앙회 최고기 이력제 사업부문 우수추진 표창, 한국중추개량협회로부터 한우개량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사업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수 축협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신용사업의 상호금융 연체비율은 0.48%로 농협중앙회로부터 클린뱅크 인증을 받았고 당기순이익 22억 4,000만원을 실현해 총 17억 3,000만원의 출자 및 이용예대당(사업준비금 포함)을 실시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종합업적평가에서 우수축협으로 선정된 가장 큰 원동력은 조합원과 직원의 한결같은 관심과



송제근 조합장

민심의 결실이다"며 "2021년도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축산업 발전이라는 축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보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단속

무주군은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경찰서와 단속반(2개 반 6명)을 구성한 무주군은 24일과 25일 양일 간 관내 건강원과 포획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은 올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유통 행위, 포획 허가자 대상 포획동무 미신고 행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사체 자가 소비(술개, 고기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기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전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해 울무와 밭, 창에 등을 수거하고 먹이를 놓아주는 활동을 펼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이 지역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시기별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야생



무주군은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

동물 자율구제활동, 농작물 피해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유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연시총회 개최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연시총회가 25일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2021년 생활개선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공유, 시상 및 배지 수여, 과제 교육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읍·면 임원들과 군감사, 수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운영진 총무가 2020년 생활개선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적극적인 생활개선회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무주읍 김정경 회원 등 6명이 모범상을 수상했다.

전직 읍·면 생활개선회장한테 주는 생활개선회 배지는 전금연 전 살천면 회장이 받았다. 과제 교육시간에는 가족공예 분야 이론과 실습과정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지역축제 심의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25일 군청에서 진안군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진안군 지역축제심의위원회(위원장 전춘성 군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으며, 2020년 지역축제 성과보고 및 평가와 2021년 지역축제 운영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지역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로쇠, 수박 팔아주기 운동과 농·특산물 드라이브 스투 특판 행사가 진행되어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이뤄졌으며, 특히 진안고원 김치보살축제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사전예약 및 시간제 운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올해 개최될 다른 축제에서 본받을 점이 많았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축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를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 비대면 축제 개최를 추진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치아사랑 구강교육 진행

무주군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의 튼튼한 치아 건강을 위해 2021 찾아가는 치아사랑 구강교육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332개소를 방문하고 5,00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포괄적인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한다.

구강보건사업팀과 통합사업팀에서 감사 6명이 투입되며,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전환에 초점을 두고 세밀한 설명을 곁들이게 된다. 올해 찾아가는 치아사랑 구강교육은 기초적인 구강질환 예방 및 잇몸질환 및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인지도교육, 어르신 틀니 사용법 및 관리요령을 전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